

# '표현의 자유'를 모독하지 말라



조희민의 영화세상

영화평론가  
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정적을 죽이기 위한 좌파의 흥기인가? 며칠 전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하려던 '굿, 바이전' 인사들의 게시물을 허가 취지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굿바이전시 조직위원회 주최, 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윤하·김용민·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10명, 민형배·윤미향 등 무소속 2명 등의 원 12명이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8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었지만 게시물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기 위한 투쟁화였다.

좌파단체의 행사에 국회의원들이 가담하고 있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전시물을 철거한 것은 한때 같은 진영이었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광재 사무총장은 좌파들이 끔찍이도 떠받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번 조치가 그나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정도로 그친 것은 더 계속해 봐야 같은 진영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설득력이 없는 데다 자칫 자중 자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표현의 자유'가 선택적 구호이고, 운동의 명분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금지하고 있다. 2020년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탈북인 단체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의로 통과되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의 비위를 건드릴까 눈치를 보다 못해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던 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해 버렸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북한 정권이 목에 가지치며 여기는 전단 살포를 우리 측에서 스스로 막은 것이다. 그렇게도 내세우던 '표현의 자유'를 법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강욱 의원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며 풍자한 '굿바이전' 작품 기습 철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시를 개막하려 했던 작가들이 해당 전시회가 국회사무처에 의해 철거되자 국회 본청으로 항의 방문을 했다. 박미나 기자

로 막았으니 좌파의 말과 행동이 따라라 것을 보여 준다.

2019년 4월 서울대·고려대·경희대·부산대 등 여러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종교외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신(新)전대협 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신(新)전대협 명의로 나붙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등을 뒤져 총정남도 천안시 단국대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김보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석 달 동안이나 조사했지만 마땅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캠퍼스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대자보를 게시한다고 처벌

하거나 고발하지 않으며 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듣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재판부는 결국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이나 검찰재판부까지 상식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무리를 계속한 것은 높은 곳에서 은밀하게 지시가 있었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었다는 방증이다.

'표현의 자유'와 혈통이 비슷한 '언론의 자유'도 수난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청와대 출입기자가 '현실 경제는 얼어붙었는데 대통령이 정책이 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질문을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 밖 기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해당 기자는 압박을 받던 끝에 2020년 3월 사표를 내고 말았다. 경기방송은 문을 닫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회사 임원의 퇴진·방송기자의 출입처 변경 등 전 방위에 걸친 압력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비판적 보도를 계속한다면 누구든 당할 수 있으니 다른 방송도 알아서 하라는 겁주기도 했다.

2021년 8월 민주당은 '허위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의 자산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비판언론을 움츠러들게 한 위험적 법안이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야당 처지가 되자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비판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야당이 되어서는 정권에 흡집을 내 줄 수 있다며 가짜뉴스든 허위보도든 모른 척 하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나에게 비판적이면 온갖 명분을 붙여 막으려 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싶으면 내버려 두는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남을 해치기 위한 흥기가 되어서도, 진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남을 해칠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 구단과 팬 믿음에 화답한 아스널의 고공비행



스포츠 세상

박병현  
스포츠칼럼니스트

지난해 9월 출범 30년을 맞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유럽 축구의 심장이라고 할 만하다. EPL의 독보적 위상은 지난 여름 2022-23시즌 이적시장의 지출 규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EPL 20개 구단이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위해 쏟아부은 이적료는 약 19억 파운드, 한화로 무려 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유럽 프로 축구는 EPL이 주도한다**

이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독일 분데스리가의 모든 구단이 쓴 이적료를 합한 액수보다도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이적료를 쓴 세리에A 전체의 약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EPL 구단은 좋은 선수 영입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EPL은 해가 갈수록 유럽과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선수와 유망주들을 마구 끌어오고 있다.

**전성기 벵거 이후 혼돈의 시간 극복 아무도 예상 못한 EPL 선두 질주 중 젊은 감독 아르테타의 내 탁 리더십**

지금 추세라면 EPL의 위상은 더욱 압도적으로 강화되고 공고해질 것이다. 비록 유럽 클럽 축구 국가대항전에서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등에 비해 경기력에서는 뒤질지 모르겠지만 관중 동원 능력이나 흥행면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할 만하다.

좋은 선수가 영입되면서 관중은 당연히 경기장을 찾지 마련이고, TV 중계권료가 인상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게 현재의 EPL이다.

**UCL 밟아본 지가 벌써 6년 넘어**

비교적 잘사는 지역인 영국의 북런던을 연고로 하는 EPL의 강자 아스널 FC는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구단이다. 축구 중개인 잉글랜드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며 최근 오랜 슬럼프를 벗어나 강자다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아스널은 EPL 4위까지의 팀에게 주어지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티켓을 잡아 본 지도 오래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UCL의 단골손님이던 아스널이

UCL을 밟아본 지가 벌써 6년이 넘었다. 프랑스 출신으로 '그라운드'의 프로페서라고 불린 경제학 박사 출신 아르센 벵거가 20년 넘게 잡은 지휘봉을 내려 놓은 뒤 UCL의 문이 닫혔다.

EPL에서 리그 4위와 5위는 비록 한 단계 차이지만 혜택은 천양지차다. 4위 안에 들어 '뎀의 무대'라고 불리는 UCL에 출전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출전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벵거 감독이 지휘하던 시절이 아스널의 전성기였다. 아스널은 세계 축구의 변방 중에 변방인 일본 프로축구 J리그나 그야 그래프에서 은둔 중이던 벵거 감독을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전격 영입해 지휘봉을 맡겼다. 벵거는 네덜란드 출신의 마르크 오버마르스를 800만 파운드에 영입해서 FC 바르셀로나에 3200만 파운드에 팔았고, 프랑스 출신의 니콜라 아넬카를 50만 파운드에 영입해 2230만 파운드에 레알 마드리드 CF에 이적시키는 등 유망주 육성 정책으로 이름을 날렸다. 게다가 유벤투스의 벤치에서 무능한 공격수라



아르센 벵거 아스널 전 감독. AP/뉴시스

평가 받던 티에리 앙리를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키운 주인공이 바로 벵거 감독이었다. 2018년 5월 벵거가 떠난 뒤 아스널이 혼돈의 시간을 극복하고자 영입한 인물이 30대의 미셸 아르테타 감독이었다.

**30대의 아르테타에게 지휘봉 맡겨**

스페인 출신의 아르테타가 아스널에서 선수로 은퇴한 지 3년 만에 사령탑에 오른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선수 시절 훌륭한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로망이던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한 번도 입지 못한 불운을 겪은 아르테타에게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 AP/뉴시스

는 한이 남았다. 세계 축구 정상에 올라 그 한을 풀 기회가 명문클럽 아스널의 감독 자리다.

아르테타는 2019년 12월 아스널에 부임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다른 팀 같았으면 이미 감독이 경질되고도 남았을 일이다. EPL의 명문인 첼시와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홋스퍼 등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그간 사령탑을 몇 차례 내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일단 맡겼으면 끝까지 믿는 경영 철학**

아르테타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

도 3년 넘도록 통련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믿지 못하면 아예 맡기지 말고, 일단 맡겼으면 끝까지 믿는다'는 구단의 경영 철학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인부용 용인물(擬人不用 用人勿疑)라는 고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인재 경영'과도 상통한다고나 할까.

올해 불혹의 40세인 아르테타는 성적이 좋으면 선수들 덕분, 패했을 때는 내 탓으로 돌리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선수들의 투지를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도자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스널은 EPL에서 부동의 선두주자(15승2무1패, 승점 47)로 질주 중이다. 2위인 갈부구단 맨체스터 시티와는 무려 승점 8점 차이다.

16일엔 원정경기에서 북런던의 라이벌인 토트넘마저 꺾었다. 20대 초·중반의 영건들로 구성된 아스널이 패색 질주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 비결은 구단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특유의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탄탄한 조직력으로 묶은 아르테타의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직 시즌 중반이지만 19년 만에 우승을 넘보려는 아스널의 기세는 무섭다.

아르테타 감독이 그간의 부진에도 침묵을 지켰던 구단과 팬들에게 과연 리그 우승으로 화답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로지 내 스스로 한 층 한 층 쌓아 갈 뿐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텅 빈 총만〉 등  
**법정 스님의 영혼을 울리는 명수필**

법정 스님  
일한 10주기 특별판  
총 50주년  
지정 600호 기념판

법정 스님  
일한 10주기 특별판  
총 50주년  
지정 600호 기념판

법정 글 | 216쪽 | 12,000원